마수걸이 승리·패배 갈림길에 섰다

K리그1 5R… 승리에 목마른 대구·수원FC·강원 주중 경기서 5번째 도전장 무승 탈출 '관심집중'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1 개막 4경기째 승리가 없는 대구FC, 수원FC(이상 2무 2패), 강원 FC(1무 3패)가 시즌 마수걸이 승리를 향해 5번째 도전장을 내민다.

올 시즌 K리그1은 개막과 함께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이상 3승 1무)의 '현대가(家)' 경쟁 체제로 4라운드까지 치러졌다.

울산(10득점)과 전북(7득점)은 나란히 개막 4경기 무패로 승점 10을 따낸 가운데 다득점에서 앞선 울산이 박빙의 선두로 나섰다. '명가 재건'을 노리는 수원 삼성(2승 2무·승점 8) 역시 무패로 선두권을 넘보고 있다.

하지만 개막 4경기째 마수걸이 승리를 챙기지 못한 대구·수원FC·강원은 10~12위로 밀려나며 '강등권 싸움'에 몰렸다.

시즌 초반인 만큼 '슬로 스타트'라고 위로할 수도 있지만 대구·수원FC·강원의 지난 4경기 결과를 보면 상황이 급박하다.

지난해 5위를 차지한 대구는 4경기 동안 4득점에 8골이나 내주며 뒷문 단속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 시즌 7위를 차지한 강원은 개막 3연패 뒤 4라운드 무승부로 승점 1을 따냈지만 11실점(3골)이나 내주며 '승점 자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승격팀' 수원FC는 사실상 창단에 버금가는 선수 영입을 펼쳤지만 개막 4경기에서 단 2골(7실점)의 빈공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이들 3팀은 5라운드를 분위기 전환의 '터닝 포인트'로 잡고 마수걸이 승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지만 5라운드 대진을 보면 쉽지 않은 도전이 예상된다.

10위 대구는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상대한다. 전북은 최근 2연승에 2경기 연속 2골씩을 뽑아내며 울산과 선두를 다투는 '난적'이다.

대구는 4경기 연속 1골씩 터트렸지만 8골이나 실점하며 공수 밸런스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나마 4라운드에서 '주포' 세징야가 시즌 마수걸이 득점에 성공한 게 다행스럽다.

'꼴찌' 강원은 17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5위 성남(2승 1무 1패)을 상대한다. 성남은 개막 2경기 무승(1무 1패)으로 부진하다 3~4라운드에서 연승을 앞세워 5위까지 치고 올라 시즌 초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특히 203㎝ 장신 스트라이커 뮬리치와 루마니아 대표팀 출신 공격수 부쉬가 모두 4라운드에서 시즌 첫 골을 뽑아낸 터라 지난 4경기에서 11골이나 허용한 강원으로선 부담이 크다.

그나마 11위 수원FC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해볼 만한 상대인 9위 인천(1승 3패)을 5라운드에서 만나는 게 희망적이다.

하지만 인천이 패했던 팀들이 1위 울산(1-3패), 4위 포항(1-2패), 6위 서울(0-1패)이었고, 모두 난타전 속에 졌던 터라 방심은 금물이다. 더구나 수비수 박지수가 4라운드에서 퇴장 당해 인천전에 나서지 못한다.

한편, 16일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제주의 맞대결은 '마수걸이 패배'가 걸려 있다. 승격팀 제주는 개막 4경기 동안 1승 3무로 선전하고 있어 '강적' 울산을 상대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뿐이다. 연합뉴스

황의조, 7·8호 멀티골… "감 잡았어"

리그앙 디종전서 맹활약 보르도 연패 탈출 견인

골 세리머니하는 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29·보르도)가 자신의 프랑스 무대 한 시즌 최다 골을 경신하며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황의조는 15일(한국시간) 프랑스 디종의 스타드 가스통-제라르에서 열린 2020-2021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 29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서서 전반 33분과 45분 잇따라 골망을 출렁이며 멀티 골을 작성했다.

황의조의 올 시즌 7·8호 골이다. 지난달 7일 브레스트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한 달여 만에 골 맛을 봤다.

이로써 황의조는 올 시즌 8골 2도움을 작성, 자신의 프랑스 무대 한 시즌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보르도의 유니폼을 입고 프랑스 리그에 진출한 지난 시즌에는 6골 2도움을 올린 바 있다.

현재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황의조의 활약을 앞세워 보르도는 8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다.

이날 사무엘 칼루와 함께 투톱으로 선 황의조는 전반 33분 선제골로 팀에 리드를 안겼다.

메흐디 제르칸이 오른쪽 측면에서 보낸 패스를 페널티 지역으로 파고든 황의조가 오른발로 마무리했다.

감을 잡은 황의조는 12분 뒤 한 골을 추가해 멀티골을 기록했다.

이번에는 니콜라 드 프레빌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딩으로 밀어 넣었다.

2-0으로 앞선 보르도는 후반 5분 드 프레빌이 직접 쐐기골을 터트려 승기를 잡았다.

후반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황의조는 후반 27분 브리앙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벗어났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PO 6강 경쟁 치열

20일 모비스 - KCC 맞대결 삼성은 4연전 결과로 판가름

프로농구 정규리그 선두를 달리는 전주 KCC가 외국인 선수 타일러 데이비스(24·208㎝)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주말 2, 3위 팀과 연전을 벌인다.

KCC는 라건아(32·199.2㎝)와 함께 20분 정도씩 시간을 나눠 뛰던 데이비스가 빠지면서 자칫 연패가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KCC는 이후 3위 고양 오리온, 4위 안양 KGC 인삼공사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한숨을 돌렸다.

1경기 차로 바짝 좁혀졌던 2위 울산 현대모비스와 격차를 2.5경기로 벌린 KCC는 남은 정규리그 8경기에서 7승을 거두면 현대모비스가 남은 9경기에서 전승을 거둬도 정규리그 1위를 확정할 수 있다.

2015-2016시즌 이후 5년 만에 정규리그 1위에 도전하는 KCC는 이번 주 2위 현대모비스, 3위 오리온과 주말 연전을 벌이는 빡빡한 일정이다.

20일 전북 전주에서 현대모비스를 상대하고 곧바로 다음 날 경기도 고양으로 이동해 오리온 원정을 치른다.

현대모비스와 맞대결에서 이기면 상대 전적 4승 2패 우위가 확정되면서 정규리그 1위 매직넘버를 확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패할 경우 상대 전적 골 득실에서 밀려 시즌 막판까지 현대모비스와 선두 경쟁을 벌여야 한다.

21일 상대 오리온은 KCC가 최근 맞대결 8연승을 거둘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오리온 역시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시즌 KCC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마저 질 수는 없다는 각오로 나올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오히려 데이비스가 빠진 이후 2연승으로 반등에 성공한 KCC는 라건아의 체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강 진출에 갈 길이 바쁜 7위 서울 삼성은 19일 공동 4위인 인천 전자랜드와 맞대결한다.

삼성이 남은 8경기에서 다 이기면 28승 26패가 되는데 공동 4위 세 팀이 현재 24승 22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역전이 쉽지 않다.

삼성으로서는 전자랜드 전에 이어 하위권 팀들인 서울 SK(21일), 창원 LG(24일)와 만나고 이어 다시 공동 4위인 인삼공사(27일) 전까지 치르는 4연전 결과에 따라 6강 경쟁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파워덩크 15일(한국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웰스 파고 센터에서 열린 2020-2021 NBA리그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에서 벤 시몬스가 덩크를 하고 있다. 이날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드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샌안토니오를 134-99로 격파했다. 연합뉴스

남자 봄배구 대한항공·우리카드 안정권

포스트시즌 출전팀 기상도 치열한 3위 싸움은 대혼전

이젠 남자 프로배구 포스트시즌 출전팀 기상도가 팬들의 흥미를 끈다.

V리그 남자부 경기는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2주 이상 중단됐다가 11일에야 재개됐다. 남자부 7개 팀은 4월 2일까지 정규리그 6라운드를 치러 포스트시즌에 오를 최대 4개 팀을 결정한다.

선두를 고공비행하는 대한항공과 2위 우리카드는 봄 배구 출전 '안정권'으로 꼽힌다.

KB손해보험, 한국전력, OK금융그룹이 다투는 3위 싸움은 치열한 대혼전 양상이다.

대한항공은 14일 KB손보를 세트스코어 3-0으로 완파하고 21승 10패, 승점 61을 쌓았다.

2위 우리카드(19승 12패·승점 55)를 여유 있게 밀어낸 대한항공은 챔피언결정전 직행을 조기에 확정하는 데 집중할 참이다.

지난 시즌 1위 우리카드도 알렉스 페헤이라·나경복 쌍포와 조직력을 앞세워 봄 배구 티켓에 한 발 가까이 갔다.

KB손보, 한국전력, OK금융그룹의 '삼국지'가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KB손보와 OK금융그룹은 경기 감각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KB손보는 이상열 감독이 12년 전 폭행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터라 선장 없이 시즌을 치러야 한다.

15일 리그 재개 후 첫 경기를 치르는 OK금융그룹도 KB손보처럼 실전 감각 문제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OK금융그룹 역시 재학 시절 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송명근과 심경섭을 빼고 잔여시즌을 치러야 한다.

4위로 올라선 한국전력의 형편이 KB손보, OK금융그룹보다 낫다.

30대 중후반인 주전 선수들의 체력 고갈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었지만, 리그 중단이라는 뜻밖의 선물이 한국전력의 숨통을 열어줬다. 연합뉴스